

전쟁의 상흔과 죄의식_‘물방울’의 의미

- 메도루마 슌 『물방울』 를 읽고 -

일본 문학과 동아시아사_손지연 교수님

2020년1학기

2016 102612 이 다 인

일본에 속해 있으나 일본이라 보기 힘든 오키나와. 류큐 국으로 독립국이였으나, 강제로 본토에 소속이 되어 버리고, 2차 대전에 미군이 주둔하게 아주 쉽게 일본정부가 내준 버려진 땅 오키나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전쟁피해, 그로 인한 망가진 일상에 대해 오키나와 출생 작가 메도루마 슌은 줄곧 오키나와에 대한 많은 소설을 써왔다. 그중 하나인 『물방울』 은 전쟁 와중에 동료를 구하지 못한 오키나와 병사의 죄책감이 드러난다.

오키나와 시골 마을 주민 어느 60대 노인 ‘도쿠쇼’는 어느날 아침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오른발이 동과처럼 부풀어 오르고 옅은 녹색을 띠게 된다. 도쿠쇼의 아내인 우시가 피병을 부린다며 도쿠쇼의 발을 톡 치자, 도쿠쇼의 엄지발가락에서 물줄기가 솟구친다. 도쿠쇼의 발이 동과처럼 부어오르니 나흘째 되는 밤부터, 도쿠쇼의 침대 밑에 군인들이 늘어서기 시작한다. 그들은 다친 상태로 나타나 도쿠쇼의 발에서 나는 물을 받아 마신다. 날이 밝아 군인들이 돌아갈 즈음, 도쿠쇼의 발은 붓기가 꽤 가라앉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발은 다시 부어오른다. 이런 일이 밤마다 계속되고, 도쿠쇼는 마을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거리가 된다. 그러나 도쿠쇼는 그 군인들이 몇 십 년 전 전쟁터에서 자신이 산속 동굴에 놔두고 온 군인들인 것을 알게 된다. 몸 다친 전우들은 갈증에 괴로워했고 자신은 그들에게 물을 날라주는 일을 맡았으나 그의 힘으로 모든 부상자들을 해소 시켜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미군의 공격이 드세지자 동굴을 버리고 남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사실상 이는 부상병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으나 이미 본인도 부상이심해 결국 그자리에 두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간다. 종전 후 그들에 대한 기억을 묻기 위해 술과 도박에 몸을 맡겼었다.

도쿠쇼의 상처에서 나오는 물이 손등에 튀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도쿠쇼의 물이 발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물을 머리에 바르니 머리카락이 나고, 마셨더니 정력이 살아나자 세이유는 물을 팔 계획을 세운다. 세이유는 도쿠쇼의 몸에서 나오는 물을 몰래 받아다가 기적의 물이라며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벌기도 한다. 군인들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더이상 밤에 나타나지 않게 되자 도쿠쇼의 몸에서도 물이 그치고, 몸을 일으키고 일어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동료들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한 죄를 씻고 싶은 소원이 몸에서 솟아나는 물방울로 형상화되어 있다. 도쿠쇼의 몸에서 솟아나는 물방울은 위안과 치유의 물방울이었다. 또한 그들과 얽힌 도쿠쇼의 오래 묵은 죄책감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기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굴레인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전시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위, 그리고 생의 대가로 인해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죄책감, 먼저 떠나 보낸 동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기억속에 남기 때문이다. 일단 의식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은 어느날 불현듯이, 어떤 계기나 사건에 의해 기억이 점화되면 그때부터는 건잡을 수 없이 기억의 저장고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물방울』 은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말할 수 없는 과거, 몸과 마음에 평생 동안 남아있는 죄의식, 잊고 싶었고 잊은 줄 알았지만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죽은 자들의 잔영, 살아 남았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산자들의 마음과 죽은 자들의 한을 형상화 한 방식이 이 소설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쿠쇼는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그때의 기억을 잊으려 했으나, 그것이 마음속에서 끓아 터져 버린 것이 ‘부어올라 다리’와 ‘물방울’이라는 외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도쿠쇼는 자신의 과거와 죄의식에 대해서 끝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한다. 전쟁의 경험이 온전하게 해소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정도의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차원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도쿠쇼와 이시미네의 대화의 장면 일부이다. 이시미네는 도쿠쇼의 고향 친구로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된 사이이다. 오키나와전투에서 철혈근황대원 같은 부대에 소속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이시미네, 용서해도.....” 흠뻑이던 이시미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입술에도 혈색이 돌아왔다. 두려움과 자기혐오 속에서도 음경은 뻣뻣해지고, 상처 자국을 휘감는 혐의 감촉에 도쿠쇼는 나직이 신음하며 사정(射精)을 했다.....(중략).....“이 50년을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니가 아나?”이시미네는 미소 지으며 도쿠쇼를 쳐다볼 뿐이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도쿠쇼에게 이시미네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고마워, 이제야 갈증이 해소됐어.” p - 42 물방울 (문학동네).

위 대화를 살펴보면 이시미네의 입장에선 자신을 버리고 간 도쿠쇼의 사과를 받아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도쿠쇼의 입장에선 지난 날의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시미네가 나타난 것은 도쿠쇼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죄책감을 지닌 도쿠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여 용서해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도쿠쇼는 이로써 다시금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 군인들의 허상들에게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물방울이 생명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속에서 지우는 방향이 아니라, 죽은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 본인 또한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직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작든 크든 자신이 한 잘못을 직면하고 용서를 빌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잘못이라면, 특히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면. 아마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잘못을 저지른 모두는 그저 그렇게 잊고 잊으며 살아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억누를때조차 무의식적으로 잘못을 인식하며 벗어날 수 없는 굴해속에 갇혀 살게 될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기제로 직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국 이 책에서도 직면을 한 순간 자기용서와 화해가 가능해 진듯하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전쟁도 생각하게 된다.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물방울의 달콤한 생명력,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 부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진정한 물방울의 모습, 전쟁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소설이다.

©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